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 계획 후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토지 이용제도를 체계화하는 한편,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농 통합 등 도시권의 광역화에 부응하기 위해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 중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군은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해 관할구역에 대해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집행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종전 국토이용계획상의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하고, 각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2014년 12월 31일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도지역(10만6천102km<sup>2</sup>) 중 농림지역이 46.5%인 4만9천345km<sup>2</sup>, 관리지역은 25.6%인 2만7천155km<sup>2</sup>, 도시지역은 16.6%인 1만7천597km<sup>2</sup>,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3%인 1만2천6km<sup>2</sup>다.

도시지역(1만7천597km<sup>2</sup>)은 주거지역 2천595km<sup>2</sup>(14.7%), 상업지역 328km<sup>2</sup>(1.9%), 공업지역 1천142km<sup>2</sup>(6.5%), 녹지지역 1만2천662km<sup>2</sup>(72%), 미지정 870km<sup>2</sup>(4.9%)이고, 관리지역(2만7천155km<sup>2</sup>)은 계획관리지역 1만2천51km<sup>2</sup>(44.4%), 생산관리지역 4천934km<sup>2</sup>(18.2%), 보전관리지역 1만123km<sup>2</sup>(37.3%), 미세분 47km<sup>2</sup>(0.2%)이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만7천593km<sup>2</sup>)보다 4km<sup>2</sup> 늘어난 1만7천597km<sup>2</sup>(전체의 16.6%)이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21만538명 증가한 4천704만8천1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인 도시화율은 91.66%로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도시화율은 2009년(90.8%) 이후 5년간 0.86% 증가에 그치는 등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매년 1% 이상 급증하던 추세와 달리 2009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을 마련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기상

2015년 우리나라의 연 평균기온은 13.4°C로 평년보다 0.9°C 높았다. 전국 4개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관측 값을 측정한 1973년 이래 최고 2위를 기록했다. 연 평균 강수량은 948.2mm로 평년 대비 72% 수준이었다. 1973년 이래 최소 3위를 기록했다.

## ■ 기온

2015년 전국의 연 평균기온은 13.4°C로 평년(12.5°C)보다 0.9°C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은 18.8°C, 평균 최저기온은 8.7°C로 평년보다 각각 0.7°C, 1.0°C 높았다.

서울의 연 평균기온은 13.6°C로 평년(12.5°C)보다 1.1°C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은 18.7°C, 평균 최저기온은 9.3°C로 평년보다 각각 1.7°C, 0.7°C 높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국과 서울의 연 평균기온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2000년대 평균 최저기온은 9.1°C로 1970년대에 비해 1.2°C, 1920년대에 비해 3.1°C가 높았다.

2015년도에 지점별 관측 이래 극값의 최고 순위 기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일 평균기온 최고 순위를 경신한 지역은 의성(8/6일, 30.0°C), 구미(8/7일, 30.3°C)였고, 일 최고기온 최고 순위를 경신한 지역은 영덕(8/4일, 38.2°C), 상주(8/6일, 36.6°C), 의성(8/7일, 38.7°C)이었다. 일 최저기온 최고 순위를 경신한 지역은 장흥(12/10일, 9.6°C)이었다.

## ■ 강수량

2015년 연 평균 강수량은 948.2mm로 평년(1천307.7mm) 대비 72% 수준을 기록했다. 1973년 이래 최소 3위였다. 강수일수는 평균 112.6일로 평년(103.5일)보다 9.1일 많았다. 전국이 마른 장마, 태풍 빈도 감소 등 강수량 부족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을 겪었다.

1시간 강수량 30mm 이상 일수는 평균 0.6일로 평년(1.7일)보다 1.1일 적었다. 일 강수량 80mm 이상 일수는 0.8일로 평년(2.3일)보다 1.5일 적었으며, 일 강수량 150mm 이상 일수는 평균 0.0일로 평년(0.4일)보다 0.4일 적었다.

서울의 연 강수량은 792.1mm로 평년(1천450.5mm) 대비 54.6%였다. 강수일수는 104.0일로 평년(108.9일)보다 4.9일 적었다. 1시간 강수량 30mm 이상 일수는 1.0일로 평년(3일)보다 2일 적었다. 일 강수량 80mm 이상인 날은 1일로 평년(3.2일)보다 2.2일 적었다. 일 강수량 150mm 이상인 날(평년 0.6일)은 없었다.

장마는 평년에 비해 기간이 약간 길었지만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239.8mm로 평년(356.1mm)보다 적었다. 장마 기간 강수일수는 17.4일로 평년(17.1일)보다 약간 많았다.

## ■ 태풍

2015년 태풍은 총 27개가 발생해 평년 평균(1981~2010년)인 25.6개 보다 많았다. 이 중 4개의 태풍(제9호 찬홈, 제11호 낭카, 제12호 할룰라, 제15호 고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예년에 비해 태풍의 내습 강도나 출현 빈도가 낮았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및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렸다. 제12호 태풍 할룰라가 북상해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한편 고온 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태풍 할룰라는 당초 허리케인이었지만 중앙 태평양에서 이동해 날짜변경선을 넘어와 태풍으로 바뀌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이처럼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바뀐 사례는 1997년 태풍 울리와 이후 처음이었다. 또한, 동해상으로 북상한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 및 경상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 지진

2015년 한 해 동안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44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방식의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47.8회)보다 발생빈도가 낮았다. 또한 규모 3.0 이상 지진은 5회로 디지털 지진관측 예년 평균(9.7회)보다 적었다.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유감 지진'도 7회로 예년 평균(8.8회)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내륙과 해역에서 각각 17회, 27회 발생했다. 그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 6회, 남해 지역에서 12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동해 지역에서는 8회 일어났다.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12월 22일 전북 익산시 북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9 지진이다. 이 지진으로 인해 전북 및 충남 지역에서는 '쿵'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고(진도 3), 전국적으로 약한 진동을 느꼈으나(진도 1~2) 피해는 없었다.

국내 지진 발생빈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20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 안정화되면서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공식 통계로 집계한다.

## ■ 월별 변화

**〈1월〉** 전국 평균기온은 0.5℃, 평균 최고기온은 5.5℃, 평균 최저기온은 -3.9℃로 각각 평년보다 1.5℃, 1.2℃, 1.7℃ 높았다. 일 최저기온 -10℃ 미만 일수는 2.2일로 평년보다 3.5일 적었고, 일 최고기온 0℃ 미만 일수도 1.9일로 평년보다 2.9일 적었다.

강수량은 25.0mm로 평년의 88.8% 수준이었으며, 강수일수는 9.4일로 평년보다 2.6일 많았다.

**〈2월〉** 전국 평균기온은 2.0℃, 평균 최고기온은 7.3℃, 평균 최저기온은 -2.5℃로 평년보다 각각 0.9℃, 0.5℃, 1.3℃ 높았다. 일 최저기온 -10℃ 미만 일수는 1.4일로 평년보다 1.4일 적었으며, 일 최고기온 0℃ 미만 일수도 0.3일로 평년보다 1.5일 적었다.

강수량은 25.5mm로 평년의 73.2% 수준이었으며, 강수일수는 6.0일로 평년보다 0.5일 적었다.

**〈3월〉** 전국 평균기온은 6.7℃, 평균 최고기온은 13.5℃, 평균 최저기온은 0.5℃였다. 전국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1973년 이래 역대 최고 3위)은 평년보다 각각 0.8℃, 1.7℃ 높았다. 평균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0.1℃가 낮았다. 일 최저기온 0℃ 미만 일수는 13.0일로 평년보다 3.5일 많았다.

평균 강수량은 40.5mm로 평년대비 69.0% 수준이었으며, 평균 강수일수는 5.1일로 평년보다 3.0일 적었다. 황사 관측일수는 평균 5.6일로 평년(1.8일)보다 3.8일 많았으며, 1973년 이후

최고 3위를 기록했다. 2014년(1.6일)보다는 4일 많았다.

**〈4월〉** 전국 평균기온은 12.7℃로 평년보다 0.5℃가 높았다. 평균 최고기온은 18.6℃로 평년과 같았다. 평균 최저기온도 7.4℃로 평년보다 1.4℃가 높았다(1973년 이래 최고 3위).

평균 강수량은 126.0mm로 평년대비 153.4% 수준이었다. 강수일수는 14.2일로 평년보다 6.4일 많았으며,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1위였다.

**〈5월〉** 전국 평균기온은 18.6℃로 평년보다 1.4℃가 높았으며, 1973년 이래 최고 1위를 기록했고, 평균 최고기온도 25.1℃로 평년보다 1.8℃가 높았으며, 1973년 이래 최고 2위를 기록했다. 평균 최저기온은 12.3℃로 평년보다 0.8℃가 높았다.

평균 강수량은 56.5mm로 평년대비 50.6% 수준이었으며, 강수일수는 6.6일로 평년보다 2.0일 적었다.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1.7℃, 평균 최고기온은 27.1℃로 평년보다 각각 0.5℃, 0.6℃가 높았다. 평균 최저기온도 17.2℃로 평년보다 0.5℃가 높았다.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은 29.5℃로 평년보다 2.4℃가 높았으며, 1973년 이래 최고 3위를 기록했다.

평균 강수량은 96.6mm로 평년의 62.4%에 그쳤으며, 강수일수는 9.6일로 평년보다 0.1일 적었다.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4.4℃, 평균 최고기온은 28.7℃, 평균 최저기온은 20.9℃로 평년보다 각각 0.1℃, 0.1℃, 0.2℃가 낮았다. 평균 강수량은 180.0mm로 평년의 62.2%에 그쳤으며, 강수일수는 14.2일로 평년보다 0.2일 적었다.

장마는 제주도에서 6월 24일부터 시작해 7월 23일 종료됐으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는 각각 6월 24일과 25일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종료됐다. 장마기간은 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각각 35일, 36일, 30일로 제주도에서는 평년보다 2일 짧았으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각각 3일, 4일 길었다.

**〈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2℃, 평균 최고기온은 30.2℃, 평균 최저기온은 21.4℃였다. 전국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각각 0.1℃, 0.4℃가 높았으나, 평균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0.1℃가 낮았다.

평균 강수량은 111.1mm를 기록해 평년의 41.5% 수준으로 1973년 이래 최소 5위였다. 강수일수는 9.9일로 평년보다 3.3일 적었다.

8월 초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이 이어졌으나, 이후 상층 한기 및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기온 변화가 컸다. 남해안 및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나,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다. 수도권 및 충청도는 평년 대비 30% 미만이었다.

**〈9월〉** 전국 평균기온은 20.5℃, 평균 최고기온은 26.2℃, 평균 최저기온은 15.6℃이었다.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과 같았고, 평균 최고기온은 0.3℃가 높았다. 평균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0.5℃가 낮았다.

평균 강수량은 55.1mm로 평년의 33.8% 수준이었으며, 강수일수는 7.0일로 평년보다 2.0일 적었다.

**〈10월〉** 전국 평균기온은 15.0℃, 평균 최고기온은 21.5℃, 평균 최저기온은 9.6℃로 평년보다 각각 0.7℃, 0.7℃, 0.6℃가 높았다. 평균 강수량은 64.3mm로 평년의 134.1% 수준이었다. 강수일수는 5.8일로 평년보다 0.1일 많았다.

## 2015년 월별 전국 평균 기후

기간	평균기온(°C)	평균 최고기온(°C)	평균 최저기온(°C)	강수량(mm)	강수일수(일)	일조시간(hr)
1월	0.5	5.5	-3.9	25.0	9.4	183.8
2월	2.0	7.3	-2.5	25.5	6.0	178.7
3월	6.7	13.5	0.5	40.5	5.1	263.5
4월	12.7	18.6	7.4	126.0	14.2	189.4
5월	18.6	25.1	12.3	56.5	6.6	284.7
6월	21.7	27.1	17.2	96.6	9.6	198.0
7월	24.4	28.7	20.9	180.0	14.2	174.0
8월	25.2	30.2	21.4	111.1	9.9	207.9
9월	20.5	26.2	15.6	55.1	7.0	222.2
10월	15.0	21.5	9.6	64.3	5.8	244.3
11월	10.1	14.1	6.6	127.8	14.9	96.2
12월	3.5	8.2	-0.6	40.2	9.9	156.5
연	13.4	18.8	8.7	948.2	112.6	2,399.2

자료 : 기상청

주 : 2016년 1월 1일 현재 통계기준인 전국평균 지점으로 산출

2015년의 첫서리는 평년보다 2일 빠른 10월 5일 대관령에서 관측됐다. 첫얼음은 10월 17일 대관령에서 관측됐으며, 평년보다 5일 늦었다.

10월 26일에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해 서해상을 지나면서 서해5도, 서해안, 전라도 일부지역에서 27일에 황사가 관측됐다. 이 같은 '가을 황사'는 매우 드문 경우로, 통상 황사는 3~5월에 발생한다. 10월에 황사가 관측된 해는 2009년, 2014년, 2015년이었다.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10.1°C, 평균 최고기온은 14.1°C, 평균 최저기온은 6.6°C로 평년보다 각각 2.5°C, 0.5°C, 4.1°C가 높았다. 전국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은 각각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2위를 기록했다.

평균 강수량은 127.8mm로 평년의 267.2% 수준이었으며, 1973년 이래 최다 2위였다. 강수일수는 14.9일로 평년보다 7.8일 많아 1973년 이래 최다 1위였다.

기압골 통과와 함께 북동기류의 유입으로 인해 11월 25일에 강원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관측됐다. 서울의 첫눈은 평년보다 4일 늦게 내렸다.

**<12월>** 전국 평균기온은 3.5°C로 평년보다 2.0°C가 높았으며,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1위였다. 평균 최고기온은 8.2°C, 평균 최저기온은 -0.6°C로 평년보다 각각 1.2°C, 2.6°C가 높았다. 12월의 경우 기온은 -0.5~+0.5°C를 평년과 비슷한 범위로 본다.

평균 강수량은 40.2mm로 평년 대비 169%였으며, 평균 강수일수는 9.9일로 평년보다 3.3일 많았다. 12월의 경우 강수량은 85~115% 수준을 평년과 비슷한 범위로 본다.

12월에 엘니뇨(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상승 현상)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아침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평균기온이 크게 올랐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작용했다.

## 인구

### ■ 현황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농업 사회였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다출산 사회였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화 이전까지 인구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산업화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위생·보건 환경이 개선되면서 사망률 하락,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6·25 한국 전쟁 이후 등장한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1955~63년생)는 인구의 급팽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96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해 산아제한 등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정책은 도시·현대화에 따른 핵가족화 등의 영향을 받아 효과를 발휘했고 인구 폭발 우려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1960년 6.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여 년 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까지 낮아졌다. 인구정책의 변화가 출산율의 하락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안팎이 유지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락세를 탔다.

2001년에는 출산율이 '초저출산'의 기준선으로 꼽히는 1.30명으로 줄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출산율은 서서히 올라 2008년 1.19명,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이 됐다.

2013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다시 주저앉았지만 2014년에는 1.21명, 2015년에는 1.24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 ■ 인구 규모 및 구조 대변혁 시작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1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61만7천45명이다.